

일본 문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게르마늄의 밤》 둘러싼 한·일간 줄다리기

일본의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은 지난 6월 17일자 한국이 “발매금지” 취급한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이란 기사에서 일본작가 하나무라 만게츠의 《게르마늄의 밤》에 대한 5월 12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의 판정을 문제삼고 나섰다.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을 음란하고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성인용 판정을 내린 것은 김대통령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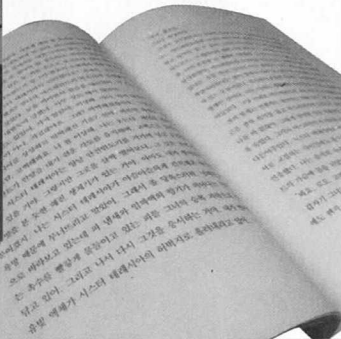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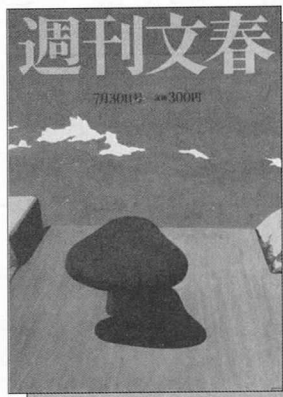
아쿠타가와상과 나오키상 등을 주관하는 일본 문예춘추(文藝春秋)사의 주간지 《주간문춘》은 기사에서 판매시 비닐을 씌워 독자들이 읽어들 수 없게 만든 것은 ‘사실상의 발매금지 취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결정의 배경이 성에 대해 관대하지 않은 한

국적 특성에 있다면서도 현대코리아연구소의 관계자와 이원범 동아대 조교수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인구의 30%를 차지한다는 점, 김대중 대통령이 가톨릭신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간문춘》 “사실상의 발매금지”

《주간문춘》의 이런 주장에 대해 간윤의 민갑식 부장은 “‘사실상의 발매금지 취급’이란 표현은 어불성설이다.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절차를 거쳐 유해간행물로 결정했고 18세 미만에게만 유통을 제한한 것뿐”이라며 “한국의 도덕·윤리 규범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일본이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게르마늄의 밤》을 번역출간한 씨앤씨미디어측은 6월 12일까지로 돼있는 재심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



최근 한국간행물윤리위의 《게르마늄의 밤》 청소년 유해도서 판정에 대해 문제삼고 나선 일본의 《주간문춘》과 서점에 비닐포장한 채 판매되고 있는 번역판 《게르마늄의 밤》.

간할 예정이던 하나무라 만게츠의 다른 소설 《울》 역시 지금은 보류중인 상태. 씨앤씨 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너무 권위적인 판단이 아니냐”며 “원 주제인 종교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곧바로 음란

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간윤은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한국어판 《게르마늄의 밤》 67면에서 70면까지를 비롯해 많은 부분이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제10조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매체물로 결정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제14조)와 함께 ‘포장하여야 한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다.

간윤, “일본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

이 소설을 번역한 양역관씨는 “심의를 존재하지만 그 기준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간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문화를 개방하기로 했다면 그 허용문제에 대해 확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연구원은 “《주간문춘》은 흥미위주의 잡지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차사의 간행물과 연관된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의 대통령 종교까지 거론하는 것은 정도가 심하다”고 말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문화평론가인 김지룡씨는 “정책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일본문화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이런 문제는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게르마늄의 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간문춘》과 간윤의 신경전은 일본문화를 본격적으로 개방한 뒤 벌어진 첫 사건으로 앞으로 일본문학을 소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수 기자

《키친》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까닭?

일본에 원초적 거부감 없는 20대 독자세대 부상

요시모토 바나나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1991년 영웅이 《키친》을 출간하면서부터다. 하지만 민음사가 다시 책을 펴낸 올 초에야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왜 《키친》은 올해 들어 서야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게 됐을까? 이는 최근 일본소설이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무라카미 하루키·유미리 등 현대일본작가의 작품을 번역해온 김난주씨는 이를 일본문학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 것과 관련 있다고 말한다. 김씨는 “지금 《키친》을 읽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독자들이 90년대 초반부터 쏟아진 일본만화의 애독자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일본만화인 《북두신권》·《드래곤볼》·《슬램덩크》 등은 90년대 초반 국내에 소개돼 큰 호응을 받았다.

세종대 박유하 교수 역시 90년대 접어들어 반일정서가 많이 누그러지면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일본문학을 접할 수 있게 된 점을 지적했다. 박교수는 “반일정서 때문에 서구에 비해 일본문학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낮춰졌다”고 지적하고 “선입견에서 벗어나 일본작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최근 마련됐다”고 말한다. 즉 현재 독서시장의 주류를

차지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독자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반일정서가 약하고 어릴 때부터 만화 등을 통해 일본문화를 가깝게 접해왔기 때문에 일본문학이라는 핸디캡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거부감의 상실을 전략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어쩐지 파라노이악> 일본 대중문학의 한 증상 및 문화개방(《문학과 의식》 98년 가을호)이라는 글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브랜드문학’, 무라카미 류의 ‘문화적 매춘’, 요시모토 바나나의 ‘어리광부리기’ 등을 지적한 이경훈씨는 “일본 대중문학은 일본 대중문화 진출의 첨병 신세로 전락한 형국”이라고 주장한다. 한일간에 공유할 수 있는 대중문화적 요소가 한국 독자의 뿌리 깊은 문화적 거부감을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45년부터 97년까지 국내에서 단행본 또는 잡지를 통해 번역 소개된 일본문학을 분석한 한양대 윤상인 교수의 논문 ‘일본문학의 한국어 번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



일본문학을 즐기는 세대는 반일감정이 없는 20대 초반의 독자층이다.

교수는 “그간 출간된 2천여편 중 80%가 역사소설·기업소설·추리소설·에로소설 등 흥미본위의 대중소설이었다”며 “90년대 들어 무라카미 하루키 등이 소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주장해 90년대 소개된 일본문학은 그래도 양질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단지 거부감이 사라졌다고 일본문학이 국내독자를 휘어잡을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 김난주씨는 “변화한 독자들의 정서를 국내문학이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일본문학 번역현황에 대하여>(《문학과사회》 97년 겨울호)란 글에서 문학평론가 심원섭씨가 한 말처럼 “일본소설을 과연 부정적인 의미의 세기말적 현상이라고만 불러야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김연수>